# 광주교육

## 얘들아, 안녕


앗, 꿈틀꿈틀~ 빛고을에 문화가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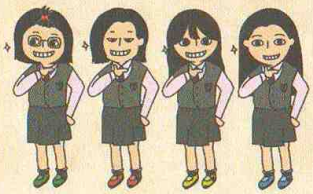
몰입 · 재미 느끼는 살아있는 교실로

책쓰기 동아리 : 이런 십팔세

요즘, 나의 걱정거리는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소식지 2015 · 12

# 이런 십팔세



(시작의 시작, 스무살)

**글.** 고은비, 김경범, 김소현, 이명주
**그림.** 박은경, 안유빈, 이규희

'이런 십팔세'는 고등학교 2학년 18세 4명의 여고생들이 전해주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이다. 18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일들을 솔직담백한 이야기로 풀어썼다. 누구나 한번 쯤은 떠올려 봤을 생각과 소망을 담아 독자들과의 교감을 이끌어 내는 편안한 분위기. 일상생활을 주제로 하여 무겁지 않고, 재미와 약간의 감동까지 더해준다. 저자들의 개성을 살려 만든 캐릭터와 직접 그린 만화도 볼 수 있다.

## 미친 듯이 하고 싶다!

십대 때는 하고 싶은 건 많아도 나이 제한이나 아직은 이르다는 이유로 해보지 못한 많은 경험들이 있다. 그 경험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저 '한번 이것 좀 해보고 싶다!' 라는 기대감이 부풀어서 이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20살에 대한 동경이 더욱 커진다. 나는 20살에 대한 동경심이 엄청나다, 항상 막연하게 친구들과 서로 하고 싶은 일들을 말해왔다. 그 중 예를 들자면,

- 20살이 되는 1월 1일,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신분증 제시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기
- 혼자 돈 모아 배낭여행 가기
- 심야영화로 19세 영화보기
- 혼자 힘으로 독립하기

이 정도?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에게는 상상만 해도 설레고 기대가 되는 일들이다.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끔씩 벌써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그 소망을 부풀리고 있다. 집에서 어머니에게도 자주 말했었는데 그때 어머니와의 대화중에는 다소 충격적인 말이 있었다. 지금의 나라던가 내 또래들은 20살 하면 자동으로 하고 싶은 것이 떠오르는 게 당연한 일인데, 어머니의 고교시절은 조금 많이 달랐다.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딱히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없어서 환상을 키울만한 것도 없었고 지금의 나처럼 상업고를 다니셨던 어머니는 학교에서 취득하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3때는 추천서가 들어왔다며 시험을 보라고 해서 그저 시험을 보고 서울라 올라가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나마 들었던 게 마이마이(**전자에서 생산한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1981년 5월에 시판)였다고 하셨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 20살이 되어서도 딱히 '이런 게 하고 싶다.'가 없으셨고, 배낭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꿨다고 한다. 지금과는 달리 해외여행을 가려면 직장에 말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갈 수 있었고 그 시절에는 신혼부부들도 해외로 여행을 못가서 가봐야 제주도였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기도 했고 어머니의 20대가 너무 삭막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물론 그 시절에는 그 시대만의 로맨스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뭔가 여러 가지를 접할 매체가 적은 세계는 상상되지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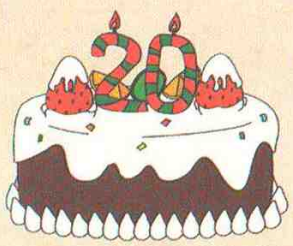
## 혼자 힘으로 독립하기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에 적어 놓은 '혼자 힘으로 독립하기'다. 이건 이미 준비하고 있는 일이다. 예전부터 모으고 있는 적금통장과 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이유 중 하나도 대학에 대한 로망도 없고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빠른 독립을 위해서다. 그리고 이 일들은 내가 십대를 벗어나서 드디어 자유로운 20살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줄 것 같아서 더욱 기대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십대인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억눌려있다는 소리는 아니다. 다만 십대와는 다르게 20살부터는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고 누군가의 허락 없이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다고 느꼈다. 지금 이십대인 사람들은 이 책임감이 상당히 무거운 사람들도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요즘은 대학에 들어가도 높은 학자금 때문에 대출, 취업을 해도 또 그 빚을 갚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다. 또, 그렇다고 부모님께 계속 손을 벌리기는 죄송하고. 평소에는 19살과 20살의 1살 차이가 가볍게 느껴지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이 1살 차이는 매우 크게 느껴진다. 철없게 느껴지겠지만 나는 그래도 그 책임감을 더 빨리 느끼고 싶다. 내가 20살이 되어 갑자기 나를 보호해주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받게 될 책임감은 물론 무거울 것이고, 가

능하다면 떨쳐 버리고 싶은 존재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도 그것과 함께 수반되어 오는 것들이 너무나 달콤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 새로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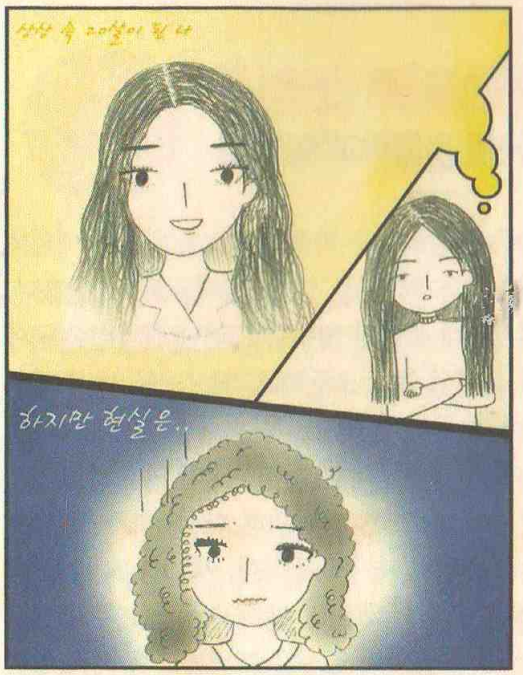

20살이 되는 순간,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일단은 첫 사회생활이다. 고등학교는 사회생활로 안쳐주는 사람이 꽤 많았다. 이유를 듣자 하니 일단 첫 번째로 고등학교와 다르게 대학교에서는 내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건 벗어나지 않던 간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이제 각자의 생각이 뚜렷해진 사람들이 한 곳에서 만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정해진 틀에 맞춰서 타의적으로 행동하는 고등학생과 달리 대학생 때부터는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동아리에 들어가는 등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또 이러한 활동으로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갖게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바뀐다고 했다. 고등학교까지는 그저 친구를 사귀는 목적이라서 서로 취향이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귀면 되는데 대학교부터는 그게 힘들어진다. 사람을 만나는데 있어서 친목보다는 인맥이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싫어진다고 해도 쉽게 인연을 끊을 수가 없단다.

다음은 첫 술자리. 이건 솔직히 기대하면서도 원치 않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한 모금 마셔봐.'라며 권하셨다. 항상 어른들이 술을 굉장히 맛있게 드시길래 궁금해서 한 모금 마셔봤는데 세상에, 세상에 그렇게 쓰고 알코올 냄새 강한 이상한 맛은 처음 봤다. 요즘은 과일 소주 같은 것들이 나와서 맛있다고 하는데 음, 글쎄 '만약 술자리가 친구들끼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라면 그런 걸 내가 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벌써부터 쓸데없는 고민을 했다.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는 20살에 아마 첫 연애, 친구들끼리 첫 여행, 첫 직장, 첫 경험 등 무궁무진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 마냥 설레지만은 않은

항상 20살이 될 때를 생각하면 항상 설렌다. 하지만 20살은 항상 찬란하게 빛나지만은 않는다. 요즘 20대는 취업난, 학자금 대출 등의 청년문제로 어깨가 무겁다. 이 청년문제는 많은 신조어를 낳았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오포 세대'다. 오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이렇게 다섯 가지를 포기했다고 해서 생긴 신조어인데 이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축 처지고 우울하게 만드는 말인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지친 사람들에게 이런 듣기만 해도 축축 처지는 단어를 굳이 설문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쓸데없이! '오포 세대'와 같은 단어들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의 청년문제를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격려해주거나 위로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아직 시작도 안한 사람마저 두렵게 만드는 건지. 내 주변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20살이 된다는 떨림도 있지만 '나도 저렇게 힘들면 어쩌지?', '조금 무섭기도 해.' 이런 애들이 많다. 그렇다는 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말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너도 당연히 그러겠지.'라는 식으로 묶어두고 먼저 불안에 떨게 만드는 건 아닐까.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은 우리들이 벌써 그런 현실이 문제로 고민을 하게 만든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분명 우리들도 학업, 교우관계 등 많은 일들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들까지 어느샌가 10대 후반의 아이들까지 걱정하게 만든, 그 단어를 만든 사람을 만난다면 왜 그런 단어를 만들었는지 따지고 싶다.

## 튼튼한 두 다리

누가 아무리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던 나는 흔들리지 않고! 20살을 생각하며 계속 설레며 꿈꾸고 싶다. 내가 곧 20살이 되고 나서 정말 저렇게 힘들다고 해도 그 속에서 나 혼자 꿈꿔온 로맨스를 지키고 싶다. 꿋꿋하게 옆에서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아직 20살도 안됐는데 다른 말들에 흔들리면서 이런 설렘마저도 사라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뭐 실패하면 어떤가. 넘어지면 어때 아직은 이 튼튼한 두 다리가 있으니 넘어지면 툭툭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면 되고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데. 아직 난 20살이 되지 않아서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내 할 일하며 준비하고, 내 두 다리만 믿고 '시작의 20살'을 기다릴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